

(주소) 15385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 (전화) 031-481-7000 (팩스) 031-481-7053

배포일	2025. 11. 30.	쪽수	사진	누리집	자료 문의
보도일	2025. 12. 1.				
경기도미술관, 《작은 것으로부터》 연계 프로그램 개최		5	6	gmoma.ggcf.kr	경기도미술관 학예연구팀 유채린 학예연구사 (031-481-7043)

경기도미술관, 《작은 것으로부터》 연계 프로그램 개최

– 퍼포먼스와 아티스트 토크로 작품 세계 심층 탐구, 12월 6일·13일 양일간 진행

- ▶ 킴김 갤러리, 구민자·사라 벨라스 퍼포먼스 공개
- ▶ 박혜수·아보프(ABOPF) 사운드 퍼포먼스 <클라우드 드림>, 관객 목소리가 작품으로
- ▶ 최수양·콘노 유키 아티스트 토크, 작가에게 듣는 조형적 전환과 신작 이야기
- ▶ 사전 예약제 운영, 서울-안산 무료 셔틀버스 운행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관장 전승보)은 현재 진행 중인 2025 경기작가집중조명 《작은 것으로부터》(2025.11.19.-2026.2.22.) 전시와 연계하여 12월 6일(토)과 13일(토) 양일간 연계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전시 참여 작가 김나영 & 그레고리 마스, 박혜수, 최수양의 작업 세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퍼포먼스와 아티스트 토크의 형식으로 관객과 소통을 확장한다.

첫째 날인 12월 6일(토)에는 참여작가 김나영 & 그레고리 마스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응하는 시스템'인 킴김 갤러리가 소개하는 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오후 2시에는 미술관 1층 라운지에서 구민자의 <정통의 맛: 매운 해물맛 라면>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이는 2014년부터 지속해온 <정통의 맛> 연작의 일환으로, 작가는 레토르트 식품의 포장지에 인쇄된 이미지를 핀셋과 각도기 등을 활용해 실물로 완벽하게 재현하는 과정을 시연한다. 음식이라는 일상적 매개를 통해 진본성을 질문하는 이 작업은 2019년 홍콩과 호주에서 소개된 바 있으며,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공개된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경기도미술관 2전시장에서는 벨라슬라바세이 파노라마의 디렉터이자 예술가 사라 벨라스가 19세기 무빙 파노라마 형식을 복원한 <캘리포니아의 거대한 움직이는 거울>을 시연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무빙 파노라마는 영화 발명 이전, 긴 화폭의 스크롤을 이동시키며 해설자가 관객에게 이야기를 설명하는 공연 형식이다. <킴김 갤러리: 트라우마 자랑> 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개되고 있는 본 작업은 스크롤 회화를 수동 모터 장치로 움직이고 내레이션과 음악을 함께 선보이며 영화 이전 시대의 시각 문화를 현재로 소환한다.

둘째 날인 12월 13일(토)에는 전시의 참여 작가 박혜수, 최수양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오후 2시 경기도미술관 1전시실에서 박혜수 작가와 사운드 아티스트 아보프(ABOPF)가 협업한 사운드 퍼포먼스 <클라우드 드림>이 펼쳐진다. 전시 기간 중 관람객들이 전시장에서 “꿈꾸는 나라”에 대해 직접 녹음한 음성과 <나라없는 사람 Ver.25>의 사운드 스케이프를 결합한 이 작업은 유토피아적 상상과 현실의 경계를 탐색한다.

오후 3시 미술관 강당에서는 최수양 작가와 비평가 콘노 유키의 아티스트 토크가 진행된다. 극사실적인 인체 조각에서 출발해 <공을 피하는 남자>(2017)를 기점으로 전환을 맞이한 작가의 조형적 여정을 조명하며, 이번 전시의 신작 <괴물원> 연작과 <UFO>가 열어 보이는 새로운 가능성 논의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경기도미술관 홈페이지 (<https://gmoma.ggcf.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 양일에는 서울 시청역 3번출구와 경기도미술관을 잇는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작은 것으로부터』는 김나영 & 그레고리 마스, 박혜수, 최수양이 20여 년간 축적해온 고유한 태도와 조형 언어를 탐구하는 전시로, 2026년 2월 22일까지 계속된다.

※ 전시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셔틀버스 운행 정보는 경기도미술관 홈페이지(<https://gmoma.ggcf.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소개

◦ 프로그램 시간표

일자	시간	프로그램
12월6일 (토)	14:00-15:20	킴킴 갤러리, 구민자 <정통의 맛: 매운 해물맛 라면> 퍼포먼스
	15:30-15:55	킴kim 갤러리: 벨라슬라바세이 파노라마(사라 벨라스), <캘리포니아의 거대한 움직이는 거울> 퍼포먼스
12월13일 (토)	14:00-14:40	박혜수 X 아보프(ABOPF) <클라우드 드림> 사운드 퍼포먼스
	15:00-15:55	최수양 – 콘노 유키 아티스트 토크

◦ 프로그램 소개

킴김 갤러리: 구민자, <정통의 맛: 매운 해물맛 라면> 퍼포먼스	킴김 갤러리가 소개하는 구민자는 일상에서 출발한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사진,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로 작업한다. 최근작에서는 특정 맥락과 관계를 드러내는 매개로서 음식을 다룬다. <정통의 맛> 연작 (2014-)은 컵라면, 햇반 등 가공식품 포장 이미지를 핀셋, 각도기 같은 도구로 완벽하게 재현하는 작업으로, 진본성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정통의 맛: 매운 해물맛 라면>은 2019년 홍콩과 호주에서 시연되었으며, 이번 킴김 갤러리 프로젝트로 한국에 처음 소개된다.
킴김 갤러리: 벨라슬라바세이 파노라마 (사라 벨라스), <캘리포니아의 거대한 움직이는 거울> 퍼포먼스	<캘리포니아의 거대한 움직이는 거울>(1853)은 60미터 길이의 파노라마 회화로, 19세기에 성행한 무빙 파노라마 방식의 작업이다. 무빙 파노라마는 영화 발명 이전, 긴 화폭의 스크롤을 이동시키며 해설자가 관객에게 이야기를 설명하는 공연 형식이다. 이 작품은 캘리포니아 초기 역사와 당시 풍경, 문화를 묘사한다. 킴김 갤러리에서 전시 중인 작업은 사라 벨라스가 복원한 것으로 2010년 로스앤젤레스 벨라슬라바세이 파노라마에서 초연되었다.
박혜수 × 아보프 (ABOPF), <클라우드 드림> 사운드 퍼포먼스	박혜수의 <클라우드 드림>은 사운드 아티스트 아보프(ABOPF)와의 협업으로 선보이는 사운드 퍼포먼스로, 관람객이 직접 녹음한 '꿈꾸는 나라'에 대한 음성과 이번 전시의 출품작 <나라없는 사람 Ver.25>의 사운드 스케이프가 결합되어 구성된다. 이 작업은 이전부터 이어온 박혜수의 관람객 참여형 작업의 연장선으로, 유토피아적 상상과 현실 사이의 경계를 우주 쓰레기라는 소재를 통해 탐구한다.
최수양-콘노 유키 아티스트 토크	《작은 것으로부터》 전시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최수양 작가와 비평가 콘노 유키의 아티스트 토크가 열린다. 콘노 유키는 최수양의 작업 변화와 신작을 중심으로 작가의 조형적 여정을 조명한다. 최수양은 극사실 인체 조각에서 출발해, <공을 피하는 남자>(2017)를 기점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이후 <언풀디드>, <블루프린트>, 신작 <괴물원>과 <UFO>에 이르기까지 그의 조형 언어는 구상과 추상, 조각과 평면의 경계를 넘나들며 확장되었다. 이번 토크는 작가의 조형 탐구의 흐름을 되짚으며, 작가가 일관되게 추구해온 조형적 가치를 깊이 있게 탐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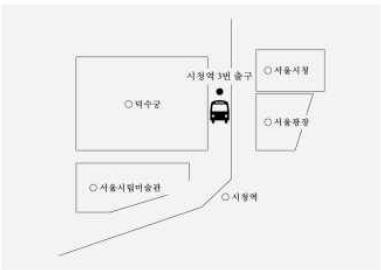
◦ 연계 프로그램일 셔틀버스 안내

- 12:30 시청역 3번 출구 ▷ 경기도미술관
- 16:00 경기도미술관 ▷ 시청역 3번 출구

◦ 신청

- 경기도미술관 홈페이지(<https://gmoma.ggcf.kr>)

2. 보도 이미지 * 이미지 원본 별첨

 <p>12월 6일</p> <p>14:00 김 김 갤러리, 구민자 정통의 맛: 매운 해물맛 라면, 퍼포먼스</p> <p>15:30 김 김 갤러리, 사라 벨라스 캘리포니아의 거대한 움직이는 거울, 퍼포먼스</p> <p>12월 13일</p> <p>14:00 박혜수 × ABOPF 클라우드 드림, 사운드 퍼포먼스</p> <p>15:00 최수양-콘노 유키 아티스트 토크</p>	<p>서틀버스 운행 안내</p> <p>12월 6일 / 12월 13일</p> <p>12:30 시청역 3번 출구 > 경기도미술관 16:00 경기도미술관 > 시청역 3번 출구</p> <p>12:30 City Hall Station (Exit 3) ▷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16:00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 City Hall Station (Exit 3)</p> 
<p>《작은 것으로부터》 연계 프로그램 시간표</p> 	<p>《작은 것으로부터》 연계 프로그램 셔틀버스 운행 안내</p> <p>황금의 땅 엿보기 에머슨과 통의 유명한</p> <p>캘리포니아의 거대한 움직이는 거울 THE GRAND MOVING MIRROR OF CALIFORNIA</p>  <p>지상 최고의 행복, 황금의 땅</p> <p>아메리카로 가는 티켓</p> <p>여러분!</p> <p>* 케이프 혼 * * 황금의 땅 *</p> <p>* 지협(地峽) 전망 *</p> <p>거대한 북미산 회색곰을 볼 수 있는 기회!</p> <hr/> <p>* 130년 만에 처음 선보이는 캘리포니아의 거대한 움직이는 거울 (이동식 파노라마). * 해설과 효과음을 동반하며 연속적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담긴 캔버스 블록은, 관객을 긴장감 넘치는 모험과 미지의 땅으로 초대.</p> <p>밸라스라바사이 영화사 제작 및 상영 WWW.PANORAMAOVIEW.ORG</p>
<p>《작은 것으로부터》 연계 프로그램 김 김 갤러리, 구민자, <정통의 맛: 매운 해물맛 라면></p>	<p>《작은 것으로부터》 연계 프로그램 김 김 갤러리, 사라 벨라스, <캘리포니아의 거대한 움직이는 거울></p>

	
<p>《작은 것으로부터》 연계 프로그램 박혜수 × 아보프(ABOPF), 〈클라우드 드림〉</p>	<p>《작은 것으로부터》 연계 프로그램 최수양-콘노 유키, 아티스트 토크</p>

3. 전시 관람 안내

- 관람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입장 마감 오후 5시)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당일
- 관람료 : 무료
- 관람문의 : 031-481-7000

gmoma.ggcf.kr

Facebook @ggmoma

Instagram @gyeonggimoma